

아이의 또 하나의 거울, 영유아교사

우남희 소장

보육·교육계에서 두려워하는 단어들이 있다. 바로 학대와 폭력이다. 잠잠해 지나 싶으면 터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매년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린지 오래이다. 급기야는 지난 2015년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에 대한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대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은 영유아교사의 올바른 인성과 인성교육 강화라는 사회적 관심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보육·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만연한 각종 사회범죄, 부정부패, 도덕성 부재 등의 사회풍조와 문제로 인성이 중요시되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온데 반해, 이제는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태와 함께 영유아의 인성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사에 대한 인성과 인성교육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혹자는 아동학대의 이면에는 영유아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인성을 소유한 교사라면 아동학대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성은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성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이 행동으로 체화되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무엇이 그른가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이나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말이다. 이성과 감정, 머리와 가슴은 따로가 아닌 융화되어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받는 인성교육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용중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정서적, 감성적 영향이 적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다. 아이의 인성은 영유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발달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거울삼아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가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아이의 인성발달에 대한 책임은 부모뿐만 아니라 제2의 가정이라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사에게도 있다. 교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는 똑같이 배우고 따라하기에 교사는 부모처럼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거울이 된다. 그렇기에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교사, 영유아에게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교사, 특정 아이를 편애하는 교사, 아이 간에 부당한 경쟁을 부추기거나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교사,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사에게서는 아이의 바람직하고 올바른 인성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교사는 인성이 곧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전문성임을 인식하고 아이에게 인성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최근 부각되는 교사 인성교육은 단순히 아동학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전이 아니며, 아이의 올바른 인성발달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성과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